

순천시 1000억 투입 도심 생태하천 복원

2013년까지 해룡·석현천 등 시민 쉼터 조성

옥천 합류지점~팔마대교 자전거도로 추진

순천시가 국비 포함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하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순천시는 오는 2013년 도심내 하천인 해룡천(사진), 석현천, 옥천, 이사천을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하천문화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룡천, 옥천, 석현천 등 생태하천은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교량 가설, 초화류 조경수 식재, 호안조성 등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석현천에 위치한 석현 저수지

에서 석현1교간은 생태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적 시민 휴식공간인 동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옥천 합류지점에서 팔마대교간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분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외동 저지대 주택 밀집지역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해 우수 저류시설 저수면적 5880㎡에 대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오는 2013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흙플러스



풍덕점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까지 4km 구간에 대한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한다.

특히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수질보전과 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생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맑은

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간 3km에 이르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함께 동천교에서 맑은물 관리센터간 3.9km 구간에 동천 '고향의 강'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후 201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공사 순조

공정률 45%...올 11월 완료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 주

제관으로 활용될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이하 습지센터) 건립사업이 45%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7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습지센터는 풍덕동, 오천동 일원에 조성되며 오는 4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내·외부 마감재 작업과 살아있는 전시관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습지센터는 지하 1층·지상2층(연면적 9985㎡) 규모로 순천만 방문자

센터와 박람회 주제영사관, 박람회 홍보전시관, 살아있는 순천만 전시체험관, 세미나실과 식당 및 카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 및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저감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로드맵에 따라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 연말에 정원박람회장, 국제 습지센터 건립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

‘청정고을’ 곡성 친환경농 성과 쑥쑥

유기농 면적 681ha로 늘어

멜론 등 해외 수출도 급증

곡성군의 친환경농업 및 상업농 육성 추진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유기 인증실적이 2010년 216ha에서 지난해 681ha로 무려 3.15배나 증가했다. 또 곡성 멜론은 수도권 46개 백화점에 입점(사진)을 하고 있고 일본·대만 등 해외 수출물량 또한 2010년 120t에서 지난해 350t으로 늘었다.

특히 환경친화적 녹색축산으로 축산물 신뢰도 확보에 노력한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2010년도 64호에서 2011년도 97호로 증가했다.

자연순환형 조식류 재배면적 또한 2010년 857ha에서 2011년도



1030ha로 늘었다. 지난해 순수 농업으로만 역대 수입을 벌어들인 '역대 농업인' 역시 당초 계획(45농가)보다 2배 많은 90농가에 달했다.

올해 곡성군은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27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무농약 인증비를 100%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질적으로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목을 벼농사 위주에서 밭작물, 채소, 특작, 과수 등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올해도 마을좌담회와 영농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 새 얼굴

“경영회생 지원 농업 선진화 앞장”

허을석 농어촌공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정도·창조·감성경영 실천으로 농·어업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허을석(56) 한국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질 높은 서비스를 농·어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업의

선진화에 앞장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 출신인 허 지사장은 목포고와 광주보건대학, 동산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산강사업단 총무부장, 나주시사 농지은행팀장, 화순지사장을 등을 지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림부 공모 선정... 3년간 100억 투자 지원

순창군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한 2012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3년간 100억원(국비 30억·지방비 50억·자부담 20억원)의 투자지원을 받는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순창군을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를 계기로 친환경 명품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선정에 대해 군은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농업 순창군지부, 순정축협, 동계·금과·북흥·구림농협 등을 주축으로 순창조합 공동사업법인 구성을 목표로 2년여 동안 준비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사업은 4개면(금과·팔각·구림·북흥)의 750농가가 참여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

년간 1140ha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무농약 이상)과 300 농가 이상 친환경 축산인증(무항생제 및 HAC-CP)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해 농업경쟁력을 확대하는데 있다.

주요사업은 농축 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 산지유통센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친환경 버 건조 저온저장시설 등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인 대응과 순창농업 혁신의 일환으로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김제에 전국최초 가공용 쌀 생산단지

市-농기센터 등과 협약식

김제에 전국최초로 가공용 쌀(누룽지 원료)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김제시는 1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재배과 고재권 과장, 김제통합 RPC 장명욱 대표, 오성제과 김희자 대표, 부량대신단지 정희천 단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국립식량과학원 벼육종 재배과에서 개발한 가공용 쌀 품종 '보람찬'(누룽지원료)을 이용한 재배단지(100ha)가 조성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행정에서는 기술지도와 경영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순도 높은 종자를 지원하며, RPC에서는 가공용 쌀 수매·전용시설 저장·도정과정을 거쳐 쌀 가공업체에 고품질 가공용 쌀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게 된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 전국최초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100ha)가 조성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쌀 산업의 생산·유통·가공과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해양 오염·방조제 조성 여파 생산량 감소”

어민들 생계 타격 몰상... 김양식 포기 속출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김양식 어민들이 올 겨울 부진한 김 작황 때문에 몰상을 짓고 있다.

김 양식 어민은 중국의 증갑속 방류와 지구온난화, 새만금방조제 공사 등의 여파로 3~4년 전부터 조금씩 악화하던 작황 부진이 올 겨울엔 더욱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올 겨울 김 작황이 최근 10여년만에 최악이어서 어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 일대의 물김을 수매하는 군산수협에 따르면 해마다 이맘때면

하루 4000~5000망(1망= 50kg)하던 일일 수매량이 요즘에는 2500망~3000망으로 뚝 떨어졌다.

군산수협의 김창수(52) 비영농 공관장은 “예년보다 30~40%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보통 7~8차례 채취를 하는데 이 기간의 채취 횟수가 급격히 감소한 탓이다.

더욱이 김의 색상이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해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황백화 현상’이 올해 더욱 심해 생

산량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1망당 보통 5만~7만원에 달하는 물김의 수매가격도 최근에는 4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김 생산량이 줄자 올 겨울 김 양식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중에서도 선유도, 무녀도와 함께 김 양식 면적이 넓은 비안도의 경우 올해 김 양식을 신청한 어민 30여명 가운데 무려 20여명이 중도에 김 농사를 포기할 정도다.

김 산업 생산자협의회 군산지회 이성모(53) 회장은 “갈수록 서해의 수질악화와 환경변화로 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전주국제영화제 ‘관객평론가’ 모집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 송하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제13회 전주 국제영화제’(JIFF)에서 활동할 ‘관객 평론가’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2월 17일까지 지난해 개봉한 한국 장편영화에 대한 영화평과 이력서를 이메일(pro-

gram7@jiff.or.kr)로 제출해야 한다.

관객평론가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4~5인은 영화제 기간 중 한국 중·장편경쟁 섹션 상영작을 시사회 해당 섹션의 관객상 수상작을 선정한다. 문의 (02-2285-0562)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 시민 40여명 대상 문해교육사 양성

익산시는 문해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2월 9일~24일까지 마포도서관에서 실시한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와 (사)한국문해교육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고졸이상

의 학력을 갖춘 문해교육기관 교사 및 실무자, 문해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한국문해교육협회 강사 및 평생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된다. 문의(063-859-5155)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읍보건소 식품위생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보건소가 전북도 주관의 2011년도 식품위생안전 관리사업 등의 추진사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과 함께 2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정읍시 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감시를 통해 지난해 단 한번

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감시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시설공사 등 월별 발주계획서 공개

남원시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공사 등에 대한 월별 발주 계획서를 공개키로 했다.

시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월별 발주

계획서를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입찰정보에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은 500만원 이상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